

LG전자, 환경보고서 발간



LG전자가 「2010 환경보고서(2010 Environmental Report)」를 발간했다. 친환경 전략, 성과, 계획들이 환경보고서에 담겨 있다.

LG전자는 제품환경과 기술 분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친환경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태양전지, LED,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을 소개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문, 영문 두 종류로 발행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요약본도 만들어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구매선(유통채널), 환경단체, NGO,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등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송되고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70페이지 분량의 LG전자 환경보고서는 ▲환경경영 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저탄소 그린경영(Low Carbon Green Management) ▲친환경 제품(Green Product Strategy) ▲에너지 환경 신사업(Green New Business) ▲대외활동(Environ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발간사에서 남용 부회장은 “녹색 성장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고객 중심의 그린 이노베이션(Green Innovation)을 통해서 인류의 풍요로운 삶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5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데 이어 올해 온실가스 610만 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G전자, 제습기로 장마철로 뽐뽐뽐하게



LG전자가 장마철을 대비해 가정용 7종, 대용량 상업용 2종 등 2010년 형 제습기 9종을 출시했다.

이번 2010년 형 제습기는 강력한 제습성능뿐 아니라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적용, 인체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50~60% 수준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

또, 탈 부착이 가능한 호스를 이용한 ‘집중 건조기능’(10리터 급)은 여름철 눅눅해진 신발뿐 아니라 젖은 옷, 이불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말릴 수 있다.

특히, 신종플루(H1N1) 등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TVF(토탈바이러스필터)를 채용해 공기청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LG제습기는 사용환경에 따라 6/10/24/30리터 등 다양한 용량 선택이 가능하며, 깔끔한 외관 디자인에 소음과 진동이 적어 실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전기료는 하루 6시간씩 가동 기준(10리터 급)으로 한달 약 2,900원에 불과하다.

LG전자 기기영 HAC(Home Appliance & Air Conditioning) 마케팅팀장은 “일반적으로 30도 기준, 습도 60%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가 80을 넘는다.”라며, “눅눅한 장마철 제습기를 이용하면 습도 때문에 높아지는 불쾌지수를 크게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LG전자, ‘옵티머스Q’ 무료 체험 이벤트 개최

“옵티머스Q 사용해보고 라스베가스 간대!!”

LG전자가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드로이드 OS 탑재 스



마트폰 '옵티머스Q'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삼성동 코엑스몰 내 LG전자 휴대폰 홍보관인 '사이언 플래닛(CYON Planet)'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고객이 사전예약 없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맡기면 2시간동안 옵티머스Q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제품으로 통화, 인터넷 서핑은 물론 옵티머스Q에 탑재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앱인 '스캔서치'를 활용해 코엑스 내 극장, 서점, 음반매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 및 이용자 후기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는 체험 고객이나 구매 고객이 이용후기를 옵티머스Q 홈페이지(www.cyon.co.kr/event/optimusq/main.jsp)에 100자로 남기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1등 3명을 선정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 2등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최근 리노베이션을 마친 사이언 플래닛에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쉬며 옵티머스Q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밖에 종로 및 강남역에 위치한 CYON 서비스센터(1544-7777, 1588-7777)에서도 동일 행사를 진행한다.

옵티머스Q는 ▲최고 사양 ▲손쉬운 사용자 환경 ▲한국 사용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갖춘 한국형 스마트폰이다. 출시 2주만에 누적 공급량이 3만5천대 및 주말 판매량 5천대를 돌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등 대박 조짐을 보

이고 있다.

LG전자 MC사업본부 CYON마케팅팀 신현준 팀장은 "옵티머스Q가 제공하는 놀라운 스마트폰 생활을 보다 많은 고객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체험 마케팅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커뮤닉아시아 2010' 서 다양한 스마트폰 라인업 선보여



삼성전자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커뮤닉 아시아(CommunicAsia) 2010'에 'Smart Phone for Smart Life'를 주제로 420 평방미터(127평)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휴대폰 제품과 통신 기술을 선보였다.

'커뮤닉아시아'는 전세계 주요 통신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유무선 통신 제품과 이동통신 장비, 부품 등을 선보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 전시회이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NTT도코모, 에릭슨, 블랙베리, ZTE 등 50여개국에서 1,100여 개 통신 관련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갤럭시S등 다양한 스마트폰 선보이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선도

삼성전자는 전시 부스를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를 중심으로 스마트 라이프, 터치&메시징, 엔터프라이즈등으로 구분해 하반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첨단 제품 라인업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S'는 안드로이드 2.1 플랫폼에 최고 화질인 4.0형(10.08cm) 슈퍼(Super) 이몰레드, 1GHz CPU를 탑재한 9.9 mm 초슬림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100여개 사업

자에 공급이 확정되는 등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윈도우 모바일, bada,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탑재한 전략 스마트폰 라인업을 대거 공개한다.

이미 선보였던 바다(bada) 플랫폼 최초 탑재모델인 웨이브를 비롯해 후속모델인 '웨이브2', '웨이브2 프로'도 처음으로 공개하며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옵티마 프로4',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시리즈 등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 후속 제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한 체험 위주의 시연을 더 강화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는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스마트 라이프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이외에도 하반기에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여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삼성앱스를 통해 제공되는 생활친화형 콘텐츠 체험존 마련

갤럭시S와 웨이브 단말을 통해 삼성앱스에서 제공되는 게임, 뉴스, 엔터테인먼트, 소셜네트워킹, 헬스 등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인다.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다(bada)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바다 개발자 챌린지'는 총 30억원(27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으며 개발자를 위하여 300대의 단말이 배포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바다 개발자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다.

▣ 모바일 와이맥스 등 차세대 통신 기술 함께 선보여

삼성전자는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무선 데이터 수요에 바로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인 모바일 와이맥스 관련 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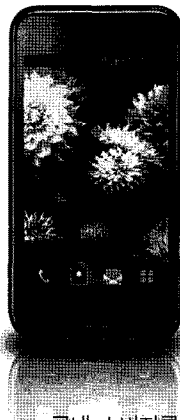
스마트폰, 넷북, MID, USB Dongle 등의 모바일 와이맥스 단말을 비롯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적합한 대용량 기지국부터 실내에 설

치할 수 있는 초소형 기지국까지 다양한 모바일 와이맥스 시스템을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시스템은 현재 모바일 와이맥스 보다 최소 4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와이맥스 2' 기술도 지원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33개국 55개 사업자와 모바일 와이맥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삼성전자, '슈퍼 스마트폰' '갤럭시 S (Galaxy S)' 국내 런칭



▣ 삼성 휴대폰 20년 역사가 만들어 낸 슈퍼 스마트폰

- Super 애플리케이션, Super 아몰레드, Super 디자인 등 3S 구현으로 최고의 스마트폰 경험 제공

▣ Super Application : 프리로드, 삼성앱스/T store/안드로이드 마켓 등 멀티 스토어 지원

- 국내 소비자를 위한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제공
- 삼성앱스, T store를 통한 국내 특화 애플리케이션 이용
-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다양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이용

▣ Super AMOLED, Super Design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 경험 제공할 최고의 걸작(Master Piece)

- 4.0형(10.08cm) 슈퍼 아몰레드 탑재로 놀라운 시각 경험
- 9.9mm 초슬림 디자인에 대용량 배터리, 16GB 메모리 등 첨단 기능 탑재
- 초고속 1GHz CPU로 HD동영상, 고사양 게임도 끊김없이 실행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가 드디어 국내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8일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갤럭시 S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국내시장용 '갤럭시 S'

(SHW-M110S)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SKT를 통해 이 달 내로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 S'는 깊이가 다른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의 '슈퍼 애플리케이션', 현존 최고 화질의 '슈퍼 아몰레드', 9.9mm 초슬림 두께의 '슈퍼 디자인' 등 3S로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한다.

▣ 혁신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바람 기대

이 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 SK텔레콤의 하성민 사장, 구글 앤디의 루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갤럭시 S'는 지난 3월말 미국 'CTIA 2010'에서 공개된 이후 글로벌 100여개 사업자에 공급이 확정되는 등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글로벌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각사 경영층들도 "갤럭시 S'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으로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은 "갤럭시 S'는 삼성 휴대폰 20년 역사의 역량이 녹아 있는 제품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의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한 차원 높은 속도감과 서비스의 진수를 마음껏 누릴 것"이라며 "나아가 개방, 공유, 상생의 전략을 기반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앤디 루빈 부사장은 "갤럭시 S' 출시는 '또 하나의 혁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며 "갤럭시 S'가 제공하는 빠르고 강력한 모바일 검색 등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도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uper Application으로 '깊이가 다른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체험 제공

'갤럭시 S'는 휴대폰에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것은 물론, '삼성앱스', 'T 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멀티 앱스토어를 지원해 소비자들에게 깊이가 다른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체험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탑재(pre-load) 또는 설치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교보문고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교보 eBook', 각 지역의 날

씨를 CCTV로 볼 수 있는 '날씨', 실제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로드뷰' 기능의 'Daum지도', 동영상을 보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사용 설명서', 콘텐츠 공유를 위한 'AllShare'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다.

또, 날씨/증권/뉴스/스케줄 등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데일리 리브리핑', 시간별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캘린더 시계', 일기장/메모 기능에 사진, GPS 위치정보, 날씨까지 저장되는 '미니 다이어리' 등 다양한 위젯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삼성 앱스'와 SK텔레콤의 T 스토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 특화된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 앱스'를 통해 증강현실(AR)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아루 아루(ARoo ARoo)', 통합 입시교육 '스마트 엠 스테디', '서울시 공식 교통 정보', 농/수/축산물 이력조화가 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얼굴인식 관상'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글 검색, 지도, Gmail, 유튜브(youtube),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 Market), 토크, 캘린더 등 다양한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최고의 걸작(Master Piece)

'갤럭시 S'는 삼성 휴대폰 20년 기술력을 총집결한 첨단 기술력으로 초고화질, 초고속, 초슬림 등 모든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기존 AMOLED 대비 선명도가 뛰어난 현존하는 최고 화질의 4.0형(10.08cm)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해 인터넷, 영상통화,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게임, 증강현실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9.9mm 두께의 초슬림 디자인에 초고속 1GHz CPU(S5PC111)를 탑재, 고화소 사진촬영, 고사양 게임 실행 등에서 끊임 없는 실행 속도와 빠른 터치 반응 속도를 제공한다.

또, 1500mAh 대용량 배터리, 16GB 대용량 내장 메모리, Wi-Fi(b/g/n), 블루투스 3.0, 지상파DMB, 3.5파이 이어잭, 영상통화, 디빅스 지원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탑재했다.